

제31호(2017. 4. 20.)

## 2017년산 쌀 수급전망과 파종기 과제

김종진 김종인 조남욱

1. 쌀 수급구조 및 정부대응	1
2. 2017년산 쌀 수급전망	6
3. 남은 과제는?	10

한국농촌경제연구원

감 수	지인배	연구위원	061-820-2132	jiinbae@krei.re.kr
내용 문의	김종진	연구위원	061-820-2382	jkim@krei.re.kr
자료 문의	성진석	선임전문원	061-820-2212	jssaint@krei.re.kr

- 「KRE | 현안분석」은 농업·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.
-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([www.krei.re.kr](http://www.krei.re.kr))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.

**요약**

- 국내 쌀 산업은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은 구조적인 공급과잉 상황에 직면해 있음.
  - 최근 10년간(2007~2016양곡연도) 연도별 초과공급량을 추정한 결과, 평균적으로 약 28만 톤가량이 과잉공급된 것으로 분석됨.
  - 정부의 특별한 대책이 없다면, 향후에도 29만 톤가량의 초과공급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.
  - 특히, 작년에는 연이은 풍작으로 쌀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정부의 변동직불금 지출이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가 소득도 감소함.
  - 이에 정부는 생산·유통·소비·재고·제도 등 쌀 산업의 모든 가치사슬을 포괄하는 전방위적인 대책을 수립함.
- 금년 쌀 생산량은 신곡 수요량에 비해 10만 톤 이상 많아 공급과잉 상황이 지속될 전망임.
  - 금년 벼 재배의향면적은 75만 6천 ha로 정부 감축 목표치인 74만 4천 ha에 비해 1만 2천 ha 많은 수준임.
  - 4월 재배의향면적 조사치(75만 6천 ha)를 적용한 2017년 생산량 전망치(평년 단수 적용)는 395만 톤으로 신곡예상수요량 380만~385만 톤에 비해 10만~15만 톤 초과공급이 예상됨.
  - 공급과잉에 더하여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이 높은 상황으로 금년에도 쌀값 하락에 따른 변동직불금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음.
- 육묘 및 모내기 시기를 고려할 경우, 금년 벼 적정생산 유도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만큼 타 작물 전환 및 과다시비 억제 등의 노력이 필요함.
  - 공공비축미 관련 품종 제외 조치에 대한 농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, 비인지 농가가 46%에 달해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가 필요함.
  - 농가 조사결과, 약 8천 ha 정도가 타 작물로 전환되며, 사료작물과 콩으로의 전환이 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함. 한편, 타 작물 전환으로 인한 대상품목의 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됨.
  - 질소질 비료 과다시비는 품질 저하 및 병충해에 대한 저항력 약화를 초래하고 과잉생산을 유발하는 만큼, 적정 수준의 시비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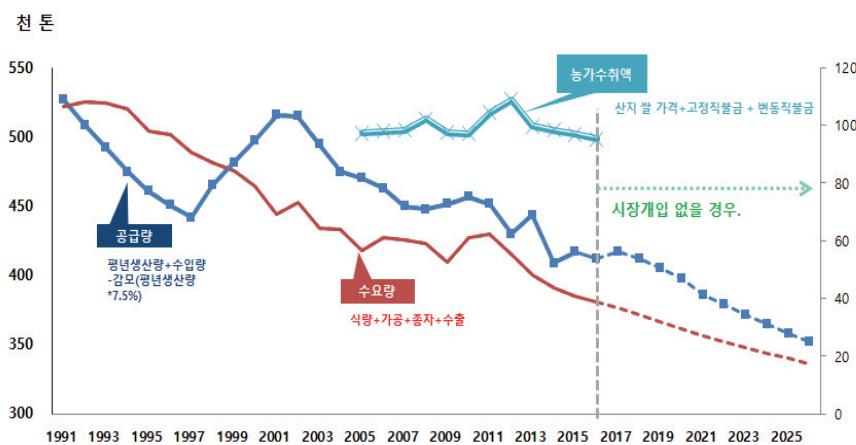
## 1. 쌀 수급구조 및 정부대응

### 1.1. 쌀 수급구조

□ 국내 쌀 수급은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큰 구조적인 공급과잉 상황이 수년째 이어짐.

-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하여 정부는 쌀 수매정책, 이중곡가제 등의 다양한 생산량 증대 노력을 수행
- 그러나 2000년 이후부터는 소득증대에 따라 먹거리가 다양해지면서 소비량 감소가 생산량 감소보다 빨라 공급과잉 상황으로 전환
  -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벼 재배면적은 연평균 약 2.2% 줄어드는 반면, 쌀 소비량은 연평균 약 2.6% 감소하여 구조적으로 생산이 과잉될 수 밖에 없는 구조(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17)
- 최근 10년간(2007~2016양곡연도) 연도별 초과공급량을 추정한 결과, 평균적으로 약 28만 톤가량이 공급과잉된 것으로 분석됨.
  - 기상상황에 따른 생산량 변동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평년단수를 적용

그림 1. 연도별 쌀 공급 및 수요량 추이

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양정자료, 농업관측본부.

“  
쌀 공급과잉 구조  
수년째 이어져

”

“  
쌀값 급락으로 정부  
재정부담 증가 및  
농가 소득 감소

”

-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, 쌀 공급과잉 구조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.
  - 쌀 공급과잉 기조 원인은 다양하나 농가 수취액이 시장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주요 원인 중의 하나임.
    - 시장의 가격기능이 작동하는 통상적인 상품의 경우, 초과공급 발생 시 가격이 하락하고 생산량이 감소하여 수급균형이 달성됨.
    - 쌀 농가의 수취액은 시장가격에 고정 및 변동직불금을 더한 것으로 2005년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. 쌀 가격은 해당 연도의 수급에 따라 변동하나 변동직불금이 쌀 가격 하락분을 보장해 줌으로써 농가 수취액은 목표가격 대비 최소 95% 이상 보전됨.
    - 쌀 시장의 공급과잉 구조가 15년 이상 지속됨에 따라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생산조정제 등의 정부개입이 일정 수준 필요하고 정당화될 수 있음.
    - 물론 이외에도 쌀 시장의 공급과잉 구조의 원인은 ① 기계화율이 높아 농촌의 일손부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, ② 가격 및 소득 변동성이 여타 작물에 비해 낮으며, ③ 소비 감소율이 빠른 데 비해 생산측면의 조정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 등임.
  - 쌀 공급과잉 구조는 정부의 특별한 대책 없이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.
    - 초과공급량을 분석한 결과, 향후에도 평균 29만 톤가량이 공급과잉 될 것으로 전망됨.
- 특히, 작년에는 연이은 풍작으로 쌀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정부의 변동직불금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가 소득도 감소
  - 3년 연속 풍작으로 2016년산 쌀 생산량이 신곡수요량보다 많아 수확기 쌀 가격이 크게 하락
    - 생산량은 평년 대비 0.8% 감소에 그치고 수확기 가격은 평년과 전년 대비 각각 23.2%, 14.7% 하락
    - 특히, 정부가 신곡수요초과물량 전량(29만 9천 톤)을 시장으로부터 격리하였으나 연이은 풍작으로 인한 시장참가자들의 불안 심리로 쌀값은 하락

- 수확기 가격이 129,711원/80kg으로 화정됨에 따라 변동직불금 지급총액이 AMS 지급한도인 1조 4,900억 원에 도달
  - 2005년 변동직불제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로 2015년산 지급액(7,257억 원)의 두 배가 넘는 금액
  - 한편, 쌀값 하락으로 초유의 우선지급금 환불사태도 발생

표 1. 2016년산 쌀 생산량 및 가격

	평년 (A)	2015년산 (B)	2016년산 (C)	증감률(%)	
				C/A	C/B
생산량 (천 톤)	4,232	4,327	4,197	-0.8	-3.0
수확기 가격 (원/80kg)	168,762	150,659	129,711	-23.1	-13.9

주 1)수확기는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를 의미함.

2)평년은 최근 5개년 절단평균을 의미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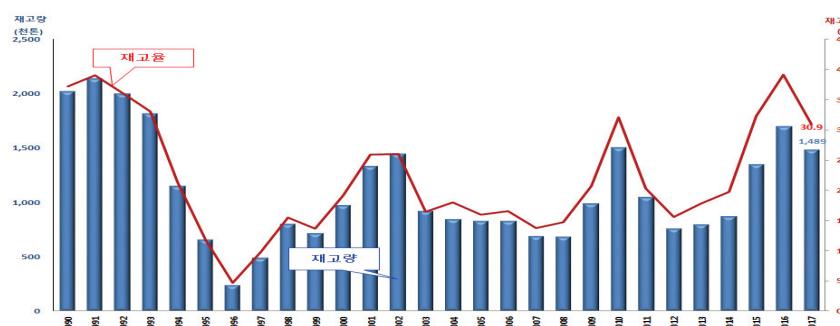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.

#### □ 특별 재고처리에도 과잉생산으로 재고는 누증

- 쌀 재고량은 평균적으로 8~10년 주기로 증감이 반복되었으나 2010양곡연도 재고과잉 이후부터는 5년 만에 재고누증 문제가 다시 발생하여 재고증감 주기가 짧아짐.
- 고미의 사료용 이용 등의 특별재고처리에도 연이은 시장격리로 재고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.
  - 최근 3년간(2014~2016년산) 정부의 시장격리 물량은 약 90만 톤이며, 지난해부터 고미를 사료용으로 9만 1천 톤 활용하였고, 올해도 46만 8천 톤까지 확대 공급할 계획임.

“  
쌀 과잉생산으로  
재고 누증

그림 2. 쌀 재고 추이

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; 농업관측본부.

“  
정부는 전방위적인 쌀  
수급안정 대책 발표

## 1.2. 정부의 대응

### □ 정부는 생산유통소비재고제도 등 쌀 산업의 모든 가치사슬을 포괄하는 전방위적인 대책 수행

- ‘2017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’은 기존의 2015년 대책에 유통·해외원조·제도개선 분야를 추가 세분화하였으며, 최근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벼 재배면적 감축, 정부재고 부문의 기준 목표치를 수정
  - 생산 측면에서는 벼 재배면적 감축, 논 활용 다양화, 고품질 쌀 생산 유도를 통해 쌀 적정생산 추진
  - 소포장(5kg 이하) 유통, 등급표시제·혼합금지제 등 개선, 소비권장기한 표시제 도입 검토를 통해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
  - 쌀 가공 및 쌀가루 산업을 육성하고 복지용·가공용·사료용 쌀 공급 확대
  - APTERR를 통한 원조(1천 톤 내외)를 금년 상반기 내 실시하고, FAC 가입 연내 추진 마무리

그림 3. 2017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 내용

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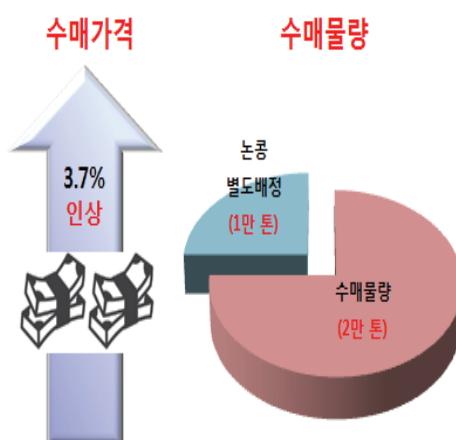
### □ 정부는 금년도 쌀 수급안정을 위해 구체적인 적정생산 유도정책을 추진

- 파종기 적정생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부정책은 ‘공공비축미 매입품 종 중 다수화 품종 제한’, ‘벼 재배면적 3만 5천 ha 감축 목표 설정’, ‘논 타 작물 전환 유도를 위한 국산두류 수매 확대’로 정리됨.
  - 다수화 품종 재배 지향과 논 타 작물 재배 유도를 통해 쌀 적정생산 목표 달성을 집중



- 공공비축미곡의 품질향상 및 쌀 적정생산을 위해 2017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대상 품종 중 소비자 선호도가 낮은 다수학 품종인 황금누리, 호품을 제외함.
  - 이는 소비자의 고품질 쌀 선호에도 공공비축미 중 시장선호도가 낮은 다수학 품종 비중이 매년 높아지는 추세를 완화하기 위함임.
- 정부는 지난 2월 ‘쌀 적정생산 추진단’을 발족하여 벼 재배면적 3만 5천 ha 감축을 위해 지자체별 목표면적을 설정하였고, 감축실적을 금년 공공비축미 매입 및 농산시책 평가 등과 연계
- 3월에는 논 타 작물 재배에 따른 논콩 생산량 확대 등을 고려한 콩 수매 계획을 발표
  - 논콩 생산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1만 톤을 논 콩으로 별도 배정하고 콩 수매량을 총 3만 톤으로 증량
  - 콩 수매가격도 전년보다 3.7% 인상한 kg당 4,011원에 수매하기로 결정

그림 4. 정부의 논콩 수매 계획

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.

“  
공공비축미 매입품종  
제한, 콩 수매계획 등  
발표

”

## 2. 2017년산 쌀 수급전망

### 2.1. 벼 재배의향면적 추정

- 농가는 연초 수립한 영농계획에 따라 벼 재배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3월에 실시되는 농가 재배의향면적 조사결과의 신뢰성이 높음.
- 대부분의 농가는 연초에 구상했던 영농계획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.
    - 과거 쌀 관측보의 추정치와 통계청 확정치의 오차<sup>1)</sup> 추이를 보면, 3월 상순 농가 벼 재배의향면적 조사결과가 실제 벼 재배면적으로 귀착되는 것으로 나타남.
    - 농가가 연초에 수립한 영농계획에 따라 파종기 이전에 종자, 농자재 및 농지를 확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.
  - 이는 재배의향면적 조사결과를 통한 생산량 예측의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뜻하는 동시에, 파종이 시작되는 현시점에 재배면적을 감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함.

3월 농가 벼  
재배의향면적  
조사결과  
신뢰성 높아

표 2. 과거 농가 재배의향조사와 통계청 확정치 추이

	3월 농가 벼 재배의향면적 조사결과(천 ha, A)	통계청 확정치 (천 ha, B)	오차 (%, B/A)
2016년	781	779	-0.3
2015년	800	799	-0.1
2014년	826	816	-1.2
2013년	843	833	-1.2
2012년	847	849	0.2
2011년	855	854	-0.1

자료: 농업관측본부 해당 연도 쌀 관측보; 통계청.

1) 농가 재배의향면적과 실제면적과의 오차는 0.1%~1.2% 수준으로 조사결과의 신뢰성이 높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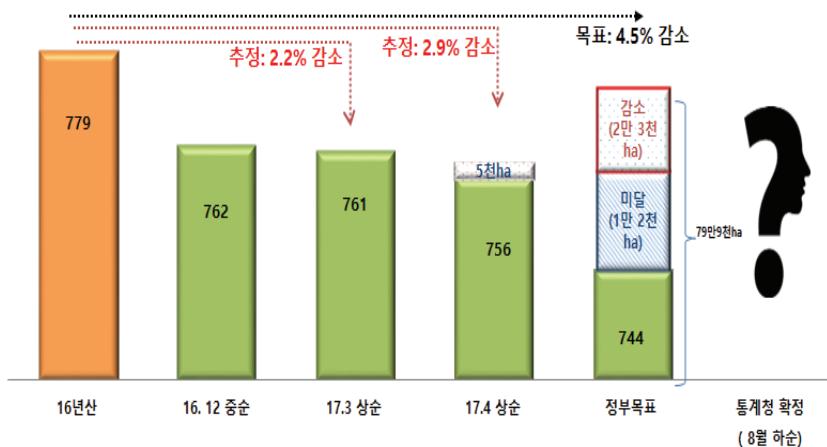


- 금년 벼 재배의향면적은 75만 6천 ha로 정부 목표치인 74만 4천 ha에 비해 1만 2천 ha 많은 것으로 나타남.

- 작년 12월, 금년 3월과 4월 3회에 걸친 농가 벼 재배의향면적 조사 결과, 금년 벼 재배면적은 정부감축 목표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됨.
  - 12월과 3월 재배의향면적은 각각 76만 2천 ha, 76만 1천 ha로 큰 차 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4월 조사에서는 3월 조사치 대비 5천 ha가 추가로 감소한 75만 6천 ha로 나타남.
- 단, 정부가 ‘쌀 적정생산 추진단’ 발대식(2017. 2. 13.)을 계기로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논 타 작물 전환을 적극 추진한 결과, 4월 벼 재배의향면적 조사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이 감지됨.
  - 4월 조사치에서 3월 조사보다 5천 ha가 추가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적정생산 유도정책이 본격적으로 수행된 이후에 나타난 변화임.
- 그러나 금년 벼 재배의향면적은 정부 목표면적(74만 4천 ha)보다 여전히 1만 2천 ha 많은 수준임.

그림 5. 2017년산 벼 재배의향면적 추정치

단위: 천ha



자료: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논벼 표본농가조사 결과(2016년 12월, 2017년 3월, 4월).

금년 벼 재배의향면적  
정부 감축목표치보다  
1만 2천 ha 많아



## 2.2. 2017년산 쌀 수급전망

### □ 금년 쌀 생산량은 신곡 수요량에 비해 10만 톤 이상 많아 초과공급 상황이 지속될 전망

- 4월 재배의향면적 추정치에 평년(522kg/10a)과 전년단수(539kg/10a)를 적용할 경우, 2017년산 쌀 생산량은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6.0%, 2.9% 감소한 395만 톤, 408만 톤으로 예상
  - 단, 기상상황에 따라 생산량 변동 가능성은 존재
- 생산량 전망치(평년단수 적용)와 신곡예상수요량을 비교할 경우, 약 10만~15만 톤이 초과공급될 것으로 추정<sup>2)</sup>
  - 2018양곡연도 신곡수요량은 380만~385만 톤으로 예상<sup>3)</sup>

금년에도 쌀  
과잉생산으로  
변동직불금 발생  
가능성 높아

### □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, 금년에도 쌀 초과공급으로 가격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고, 변동직불금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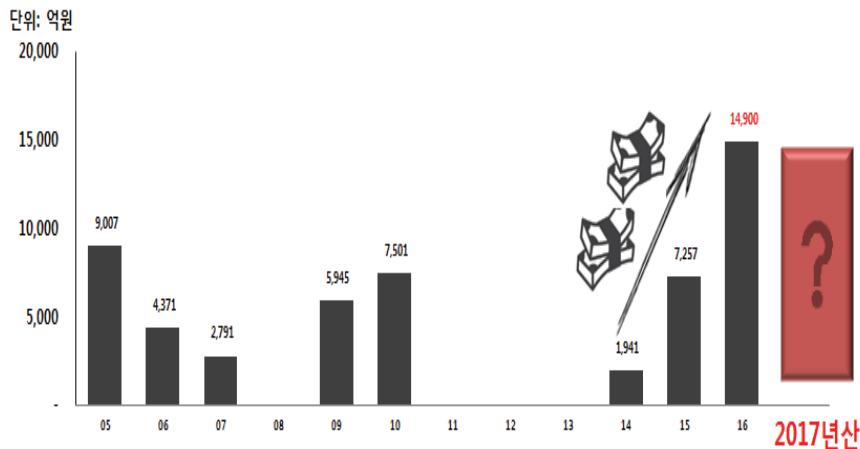
- 최근 3년 연속(2014~2016년산) 변동직불금이 지급되었고, 지급 총액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.
  - 변동직불금 지급총액은 2014년산이 1,941억 원, 2015년산 7,257억 원, 2016년산은 AMS한도(1조 4,900억 원)까지 도달
- 초과공급 발생 전망에 더하여 현재 쌀값 하락으로 인한 시장참가자들의 심리적 불안이 높은 상황으로 금년도에도 쌀값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
  - 따라서 변동직불금 지급액도 클 것으로 예상

2) 전년단수를 적용할 경우 23만~28만 톤의 초과공급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.

3)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(2017. 2. 9.).



그림 6. 연도별 변동직불금 지급총액 추이

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.

“

추가적인 쌀값 하락은  
농가수익 감소에  
직결되는 만큼 농가의  
적정생산 협조 필요

- 쌀값이 현재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면 변동직불금이 AMS한도를 초과하여 소득보전 정도가 약화되므로 쌀 적정생산 유도정책에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
  - 쌀값은 수급상황에 더하여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하는데 연이은 풍작으로 현재 가격수준이 매우 낮고 또다시 과잉공급이 발생할 경우, 투매현상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
    - 작년에도 정부가 과잉 신곡수요량에 해당하는 29만 9천 톤을 모두 격리하였음에도 쌀 가격은 심리적인 요인으로 크게 하락
  - 추가적인 쌀값 하락은 정부의 재정부담에 더하여 농가수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농가도 이를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정부의 적정생산 유도정책에 동참 필요

”

“  
벼 재배면적 감축  
시간적 여유 많지  
않아”

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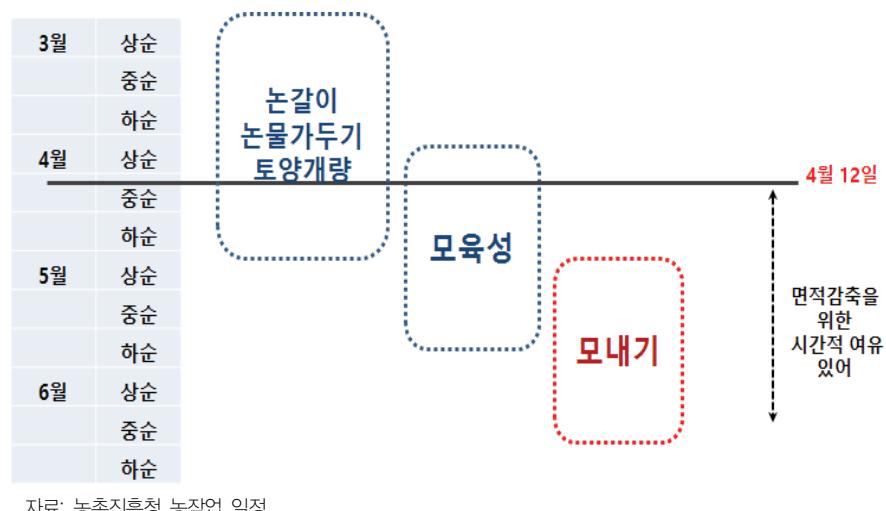
### 3. 남은 과제는?

#### 3.1. 벼 재배면적 확정시기

- 육묘 및 모내기 시기를 고려할 경우, 벼 적정생산을 위한 재배면적 감축의 시간적 여유는 많지 않음.

- 지역별로 편차가 존재하지만 모내기 시기는 5월 상순~6월 중순으로 이때 벼 재배면적이 결정됨.
  - 통상적으로 벼 재배를 위한 영농계획은 연초부터 시작되며 종자, 비료, 농자재 확보가 이루어짐.
  - 벼 재배의 농작업은 지역별로 상이하나 대개 3월부터 논갈이, 논물가두기, 토양개량 작업이 이루어지고, 빠른 곳은 4월 초부터 육묘가 시작됨.
  - 모내기는 통상적으로 5월부터 6월까지 이루어지는데 모내기가 끝나면 금년 벼 재배면적이 확정됨.
- 이모작 논의 모내기는 7월 초까지 계속되므로 단작 형태의 논보다는 이모작 논의 타 작물 유도에 다소 시간적 여유 존재
  - 대표적인 동계작물인 양파와 마늘의 수확 시기가 7월까지임을 감안할 때, 이모작 논에 대한 타 작물 전환 홍보를 집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그림 7. 시기별 벼 주요 농작업





### 3.2. 다수확 품종 제한

□ 현시점에서 농가들은 금년 벼농사를 위한 종자를 대부분 확보한 상태로 소비자 선호도가 낮고 다수확인 품종을 제외하는 방식의 생산량 감축은 다소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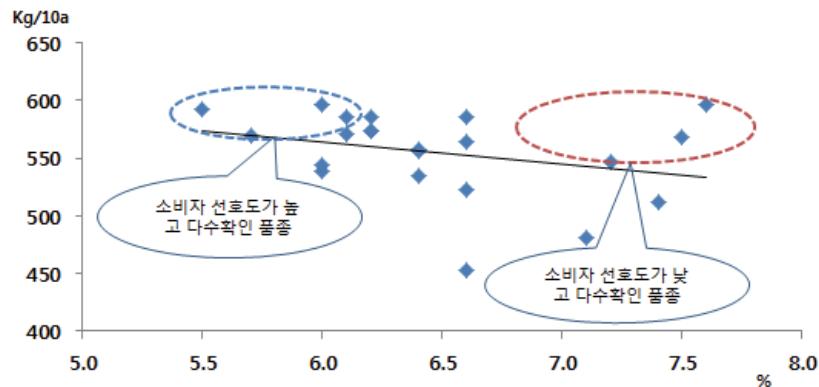
- 벼 종자는 약 70%가량이 국립종자원에서 보급하고 나머지 30%는 농가들의 자가 채종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짐.
  - 국립종자원의 벼 종자 신청은 기본신청 기간이 전년 12월까지이며 이후 신청물량 조정 및 추가신청이 이루어지고, 종자 공급 시기는 1월에서 3월까지임.
- 농가들의 종자 확보 일정을 고려하여 정부는 지난해 11월 2017년산 공공비축미 매입품종 중 소비자 선호도가 낮은 다수확 품종인 ‘황금 누리(단수: 574kg/10a)’와 ‘호품(600kg/10a)’을 제외하기로 결정
  - 2018년에는 벼 보급종 단계부터 다수성이면서 시장선호도가 낮은 품종도 제외
- 공공비축미에서 품종 제외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, 인지하지 못하는 농가가 46%에 달해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  - 아직 상당수 지역이 파종 전이므로 홍보 여하에 따라 자가 채종 종자 등의 전환에 영향을 줄 수 있음.
- 다수확 품종을 제외하는 것만으로도 논면적을 유지하면서 생산량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 측면에서 재배면적 감축노력과 함께 품종 조정도 필요
  - 벼의 품종별 단수 차이(정부 보급종 평균 552kg/10a, 표준편차 37kg/10a(평균 대비 6.7%))가 큰 만큼 다수확 품종배제로 쌀 생산량 크게 감축 가능
  - 그러나 고품질·다수확인 품종으로 육종이 이루어지면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다수확 품종이 존재함에 따라 시장에서 품질 차이에 따른 가격 차별화로는 다수확 품종을 모두 제외시킬 수 없음.
  -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다수확 품종의 조정은 수급조정 측면뿐만 아니라 생산 효율성, 식량안보 등의 이슈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

“

공공비축미  
매입품종 제외  
홍보 필요

”

그림 8. 벼 품종별 단수와 단백질 함량



주: 통상적으로 단백질 함량이 낮을수록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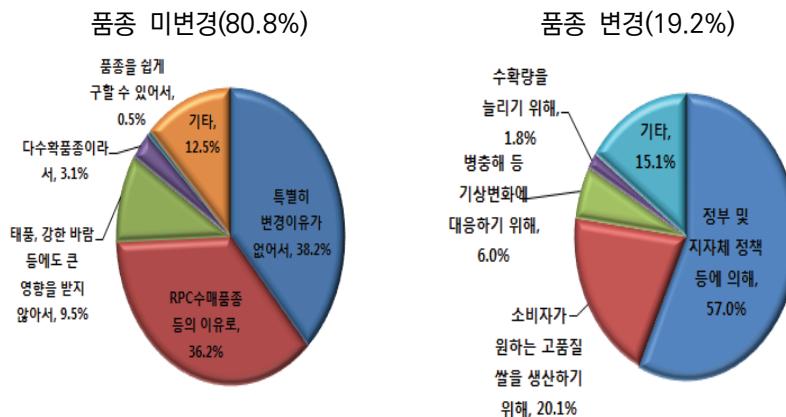
자료: 국립종자원

“  
논 타 작물 전환에도  
전환작물의 수급에는  
큰 영향 없을 듯

”

- 농가 조사결과, 19.2%의 농가가 금년 벼 품종을 전환하였다고 응답하여 농가가 품종전환을 어려워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.
  - 미변경 이유로 RPC수매품종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36.2%에 달해 RPC가 농가의 품종선택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됨.
  - 품종 변경 이유로는 ‘정부 및 지자체 정책 등에 의해’(57.0%), ‘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’(20.1%)라고 응답한 비중이 75%를 상회했는데 이는 정부의 쌀 고품질화 정책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.

그림 9. 벼 품종 전환 여부에 대한 요인



자료: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논벼 표본농가조사 결과(2017. 4. 3.~ 4. 5.)



### 3.3. 타 작물로의 전환

□ 농가 조사결과, 약 8천 ha 정도 타 작물로 전환되며, 사료작물과 콩으로의 전환이 절반 이상을 차지

- 타 작물 전환이 전환작물의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특정 작물에 집중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.
  - 총 전환면적 8천ha 중 30.3%(2.5천ha)가 사료작물, 25.8%(2천ha)가 콩, 19.9%가 무, 대파 등의 채소류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남.
- 그 외 전환작물로는 대파, 참깨, 옥수수, 고추, 파프리카, 애호박 등이 있음.

그림 10. 논 타 작물 전환 면적



자료: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논벼 표본농가조사 결과(2017. 4. 3.~ 4. 5.).

□ 정부의 콩 수매가격 인상 및 수매물량 확대로 금년 콩 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듯

- 정부는 논 타 작물 재배 유도를 위해 콩 수매물량 확대 및 가격 인상정책 발표
  - 농가조사 결과, 아직 논콩 관련 정부수매계획을 인지하는 농가가 54.9%에 불과하여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홍보 필요

정부의 콩 수매  
확대로 금년 콩 수급  
다소 여유 있어



“  
 질소질 비료  
 과다시비는 품질저하  
 및 과잉생산을  
 유발하는 만큼  
 적정시비 유도 필요”

- 농가조사 결과, 금년 논콩 전환면적은 약 2천 ha로 총 논콩 재배면적은 6.4천 ha 수준으로 예상됨.
  - 전년(154kg/10a)과 평년(175kg/10a) 단수 적용 시, 논콩 생산량은 전년 대비 각각 3천, 3.5천 톤 증가하여 총 논콩 생산량은 1만~1.1만 톤으로 전망
- 논콩 면적 증가에도 금년 국산 콩 가격 급락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됨.
  - 금년 전체 콩 재배의향면적(콩 관측 4월호)은 전년 대비 4.4%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평년보다는 27.4% 적은 수준
  - 현재 콩 가격은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17%, 8% 높은 수준으로 정부 수매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아 2016년산 정부 수매계획 목표량을 채우지 못함.
  - 정부 콩 수매계획량 3만 톤은 전체 생산량의 40% 수준(2016년산 기준)
- 농가조사 결과에 나타난 현재의 논콩 전환의향면적 수준에서는 금년 콩 수급에 다소 여유가 있는 만큼 콩으로의 추가적인 전환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  - 금년 벼에서 콩으로의 전환의향 면적은 금년 콩 재배예상면적의 4% (2천 ha) 수준
  - 정부 수매계획 물량(3만 톤)에 평년단수를 적용하면 약 1만 7천 ha로 금년 콩 재배예상면적의 34% 수준임

### 3.4. 파종기 적정시비

□ 질소질 과잉시비를 통한 생산량 증가는 부작용이 큰 만큼 파종기의 밀거름, 새끼칠거름에 질소비료의 적정시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필요

- 질소질 비료는 벼가 자라는 데 필요한 성분이지만 적정량 이상으로 사용할 경우 쌀 품질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
  - 질소질 비료를 과다 시비할 경우 생산량은 증가하나 도복이 쉽고 도열병 등의 병충해에 취약해지며 단백질함량 증가로 밥맛도 나빠짐.
  - 또한 질소질 비료 과다투입은 생산량 증가로 이어져 현 공급과잉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을 높임.



- 쌀 등급제가 금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고품질 쌀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농가의 질소질 비료 과다투입 자제 필요
  - 파종기 밑거름, 새끼칠거름에 질소질 비료의 적정시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
  - 일부 지역에서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질소질 비료 시비량을 줄이는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음.

---

## KREI 현안분석 제31호

2017년산 쌀 수급전망과 파종기 과제

---

등 록 제6-0007호(1979. 5. 25.)

발 행 2017. 4. 20.

발 행 인 김창길

편집위원 김수석, 마상진, 황윤재, 이대섭, 지인배, 심재현, 구자춘

발 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

우)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

대표전화 1833-5500 <http://www.krei.re.kr>

인 쇄 (주)한디자인코퍼레이션

02-2269-9917 admin@han-d.co.kr

- 
-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.
  -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.  
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.
-